

매일경제

2012년 6월 15일

건설일감 줄어... “건설 중장비 20만대중 절반 시동 꺼졌다”

주택·건설경기 침체의 여파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일감이 없어 돈 버는 날보다 노는날이 더 많아진 것은 일부 건설사만의 고충이 아니다. 민간 개발사업은 사실상 자취를 감췄고 정부나 공공기관의 발주 공사도 눈에 띄게 줄었다.

대형사의 위기감은 전문건설업계로, 다시 설비나 기계업체에 ‘좌절감’으로 전이되고 있다. 불황의 하방압력이 거세지면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로 내려갈수록 그 하중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마련이다.

유관산업에까지 불뚱이 튀면서 한계상황에 다다른 업체들이 업종을 가리지 않고 속출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피라미드가 밑에서부터 붕괴하고 있는 것이다.

강팔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일용근로자들 일감이 떨어져 상당수가 생활고를 걱정해야 할 처지로 전락했다”고 토로했다.

붕괴 직전 주택·건설업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2004년 39.1%였던 중소기업사의 수주비율은 2010년 30.5%로 내려앉았다. 전문건설업체 평균 영업이익률도 -6%로 곤두박질쳤다. 결과는 대규모 부도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3,637개 전문건설업체가 업계에서 사라졌다. 전체 조합원의 약 8% 수준이다.

이종상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중합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전문건설업계는 경기침체에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까지 감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도급업체 더 서럽다
그나마 일 따냈어도
공사비 떼이기 일쑤
영업이익 -6% 추락

지방의 설비업체 A사 대표는 “마누라 재산까지 다 팔았는데도 부도날 지경”이라며 호소했다. 일감이 떨어져 허덕이는 것도 모자라 그나마 ‘가뭄에

주택·건설업계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100대 건설사 중 절반이 영업 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

김중재
주택건설협회장
주택업계 하우스푸어가 회생할 수 있게 거래 활성화

최재덕
해외건설협회장
해외건설 금융·인력분야 과감한 정부지원 필수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장
주택공급 위해 각종 부담금·공금규제 등 재검토해야

김홍수
건설산업연구원장
주택공급 위해 각종 부담금·공금규제 등 재검토해야

김명국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DTI 완화하고 취득세도 한시적 감면 추가 대책 필요

정완대
건설공제조합이사장
현재 건설산업 침체는 외환위기 때와 유사한 수준



이종상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작년 3,637개사가 사라졌고, 영업이익률은 -6%로 추락



정순귀
대한건설기계협회장

저가 수주 양산하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해야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장

전문건설업체 살리려면 공중도급제 전면 시행해야



김연태
한국건설감리협회장

건설산업 위축, 이제는 구조적 문제가 돼버렸다



제해성
한국도시시설계획협회장

주거도 복지이기 때문에 주택·건설업계 고사를 막아야



정춘보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정부가 개발업체들의 자금조달 통로 확보해줘야



이상한
주거복지연대 이사장

'DTI 원화면 금융권 부실' 정부 발상은 단순한 생각



김진수
주거환경연합 사무총장

자가보유율이 51%로 낮아 도시재생사업 정책 지원 필요



김재철
바른재건축재개발전 국연합회장

100대 건설사 중 절반이 영업 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



김민수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장

주택거래 침체 공인중개사 8만명 생존권 위협받고 있다



박순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장

시설물 유지 투자 비중 선진국 수준 높여야

콩 나듯' 수주한 공사도 공사비를 떼이
기 일쑤다.

대형 종합건설사도 어렵다 보니 공사
비에도 못 미치는 예산으로 낙찰자가 선
정될 때까지 계속 입찰에 부치는 일이
일상화됐다.

역마진이라도 공사를 수주해왔지만 어
음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던 하도급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불뚱이 설비업체인
A사에까지 튼 것이다.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경기가 위축돼 대형사가 어려워지
니 리스크가 소형업체들에게까지 전가되고 있다"며 "전문건설업체들이 아
사 직전"이라고 말했다.

김명국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미분양 주택의 증가로 공사
대금 수령이 늦어지면서 대부분이 하도급 업체인 조합원들의 부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건설 중장비 20만대 중 현재 절반인 10만대가 시동을 끈 채
놓고 있다. 4대강 사업 이후 SOC예산은 점점 줄어 일감이 없다. 그
나마 일감이 생겨도 장비 임대료는 체불되기 일쑤다. 정순귀 대한
건설기계협회 회장은 "하도급업체들이 임대료를 체불하거나 부도를
내고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유관산업도 아사 직전

주택·건설업계의 불황에 유관산업도 직격탄을 맞았다. 각종 건
물 및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맡는 시설물 유지관리 업계도
기나간 겨울나기를 하고 있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시설물유지관리업
체 수는 총 4,249개, 총실적은 3조2,000억원이었다. 2010년 말보
다 총실적 규모는 1,000억원 늘었지만 회사당 평균 실적금액은 되
레 평균 1,000만원씩 줄어들었다.

박순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장은 "직접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예산은 증가한 반면 공공공사 예산은 상대적으로 축소돼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한때 전국을 무대
로 부동산 개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던 민간 개발업체들은 이제 명
맥을 유지하기도 버거운 실정이다. 정춘보 부동산개발협회장은 "정
부가 개발업체들에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줘
건전한 사업만큼은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개발협회에 따르면 전국에 개발업으로 등록된 회사는
2,000개에 달하지만 실제로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이 100개
도 안 된다.

김민수 자산관리사협회장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에는 거래가
없어 분식집이나 커피점으로 아예 업종을 전환한 곳이 늘어난다는
소식까지 들린다"고 우려했다.